



백용환

이홍구

안방마님 新바람 타이거즈 신났다

백용환·이홍구 '젊은 피'로 세대교체 홈런 주머니 받거나... 공격형 포수 기대

‘호랑이 군단’의 안방이 강해졌다. 긍정의 힘, 경쟁, 믿음이 어우러진 변화다. KIA 타이거즈의 여름 안방은 백용환·이홍구가 책임지고 있다. 2008년 고졸 신인으로 출발한 백용환은 경찰청에서 군복무를 마친 예비역. 이홍구는 2013년 단국대를 졸업하고 유니폼을 입은 대졸 3년차다. KIA의 젊은 포수 자원으로 꼽혀온 이들은 장종고 1년 선후배 사이이기도 하다. 새 유니폼을 입고 재회한 두 사람은 지난 2년 이렇다할 활약을 하지 못했다. 백용환이 공격형 포수로 주목받았지만 크고

작은 수비 실수로 고민을 남겼다. 강한 어깨로 어필한 이홍구는 타격이 좋지 못했다. 단점이 극명했던 두 사람이 올 시즌 안방을 차지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두 사람은 KIA 안방을 끝까지 지키며, 주머니 받거나 한방을 터트리는 등 공격에도 불을 붙이고 있다. 달라진 이홍구의 표정은 심상치 않은 울 시즌을 예고했다. 이홍구는 ‘공정의 힘’으로 자신을 바꿨다. 지난 겨울 눈에 띄게 성장한 이홍구는 개막 엔트리를 꿰찼다. 그리고 조급함을 버리지 숨겨놓았던 장타

실력이 드러났다. 공격이 풀리면서 수비에서도 안정감이 더해졌다. 벤치의 믿음을 얻으면서 경험이 쌓여갔고 이는 다시 실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이뤄졌다. 후배 이홍구가 최고의 시즌을 보내는 동안 선배 백용환은 때를 기다렸다. 6월30일 마침내 기회가 왔다. 뒤늦게 1군 경쟁에 뛰어들 백용환은 7월4일 세 번째 경기 만에 kt를 상대로 시즌 첫 홈런을 터트리면서 홈런 경쟁을 예고했다. 8일 이홍구가 넥센을 상대로 멀티 홈런을 날렸고, 16일 LG전에서는 백용환이 연타석 홈런으로 파워

를 보여줬다. 두 사람은 삼성을 상대로 7월 22일과 23일 나란히 손맛을 보며 후반기 반격의 신호탄도 쏘아올렸다. 24일 롯데전에서는 백용환이 수비 실수를 만회하는 짜릿한 역전 끝내기 스리런을 쏘아올리며 주인공이 됐다. 불붙은 홈런 레이스는 30일 SK전에서 빛이 났다. 이홍구가 0-3으로 뒤진 3회 솔로포로 공격의 포문을 열었고, 2-4로 뒤진 7회에는 백용환이 역전 스리런으로 승리에 마침표를 찍었다. 두 사람은 7월 한 달 10개의 홈런을 합작했다.

선의의 경쟁이 긍정적인 작용을 하고 있다. 공격뿐만 아니라 수비에 대한 욕심도 불었다. “용환이 형이 잘하고 있어서 더 집중해서 플레이를 하게 된다. 수비에서도 욕심이 많이 난다. 도루 저지도 잘하고 싶고 더 발전하고 싶다”는 이홍구와 “점수를 내는 것도 좋지만 포수로서 점수를 막을 때 더 기분이 좋다. 홍구와 기본 좋은 경쟁을 하고 있다”는 백용환. 일본 주니치의 주전 포수로 명성을 날렸던 나카무라 배터리 코치의 조언도 젊은

포수들의 잠재력을 끌어내고 있다.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를 아낌없이 풀어내고 있는 그는 “나는 수비 하나하나에 신경 쓰고 있는데 두 사람은 무슨 자신감들인지 모르겠다. 한번 물어봐 주라”는 농담을 던지기도 하는 위트 넘치는 지도자다. 나카무라 코치는 많은 대화와 관심으로 그들의 마음을 열고, 두 사람을 훈련 파트너로 해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 궁합이 잘 맞는 지도자와 경쟁자들의 만남으로 KIA 안방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한국 男배구, 7년만에 이란 격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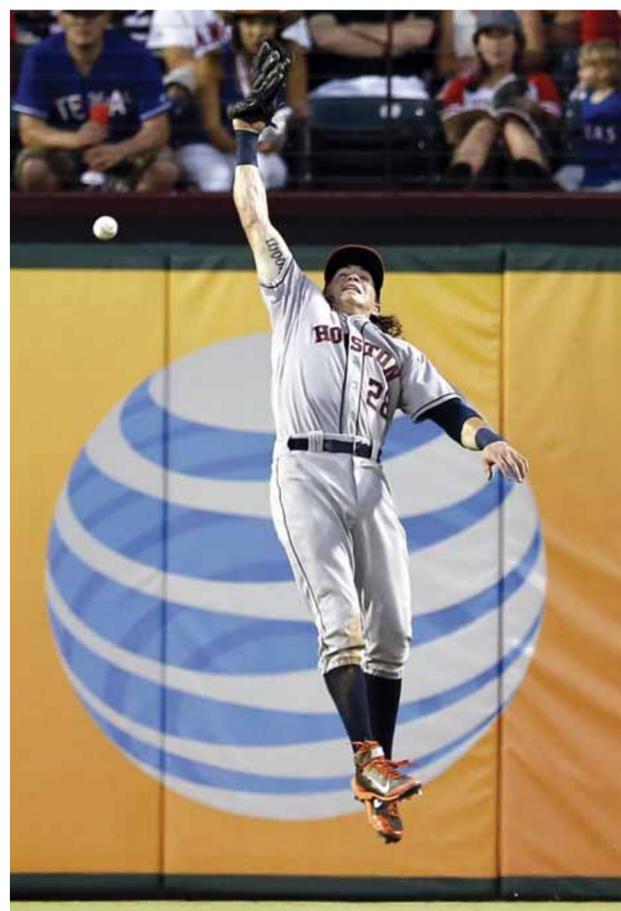
표선수권 8강 PO 2차전 승

문용관 감독이 이끄는 한국 남자배구 대표팀이 ‘아시아 최강’ 이란의 벽을 넘었다. 한국은 5일 이란 테헤란의 아자디체육관에서 열린 제18회 아시아남자배구선수권대회 8강 플레이오프 2차전에서 개최국 이란에 세트 스코어 3-1(17-25, 28-26, 25-20, 25-23)로 역전승했다. 한국 남자배구가 이란을 승리한 것은 무려 7년 만이다. 2008년 태국에서 열린 제1회 아시아배구연맹(AVO)컵에서 이란에 1승1패를 기록한 이후 7연패를 당했다. 문 감독은 이날 무릎 부상으로 ‘국보급 센터’ 신영석을 투입하지 못했다. 이란 홈

관중의 일방적인 응원도 극복해야 했다. 한국은 1세트 초반 이란과 대등한 승부를 펼쳤지만 6-6 이후 점수차가 벌어졌다. 1세트를 8점차로 내주자 문 감독은 세터를 권영민에서 ‘젊은 피’ 이민규로 교체했다. 한국은 2세트 초반 센터진이 블로킹 타임을 잡지 못하는 등 허점을 드러냈다. 어려운 상황에서 송희재의 강서브와 최홍석의 공격이 살아난 한국은 8-7로 리드를 잡았다. 그리고 듀스까지 간 끝에 27-26으로 앞선 상황에서 최홍석의 서브 에이스로 결국 2세트를 따냈다. 3세트 8-8로 팽팽한 상황에서 상대 세터의 페이스 페인트에 당했지만 끈질긴 수비로 버티고 상대 실책까지 유도한 한국은 14-11로 앞서갔다. 이후 최민호의 속공과

송희재의 블로킹, 지태환의 연속 속공, 최홍석의 서브 에이스로 3세트도 집어삼켰다. 한국은 4세트 강력한 서브로 초반 기선 제압을 했지만 서브 리시브가 흔들리면서 9-9로 맞서다가 역전을 허용했다. 그러나 20-21로 뒤진 상황에서 광석의 공격과 상대 범실, 최민호의 블로킹으로 역전에 성공했다. 이란의 날카로운 반격에 23-23 동점을 허용했지만 상대 실책으로 간신히 매치 포인트에 도달했고, 이란의 범실로 7년 만의 승리를 맞았다. 조별예선(2차전)과 8강 플레이오프(2승) 성적을 더해 E조 1위에 오른 한국은 6일 같은 장소에서 F조 4위인 일본과 8강전을 치른다. /연합뉴스

“실책 아닌 2루타” 추신수 7경기 연속 안타



메이저리그 휴스턴 애스트로스팀과 텍사스 레인저스팀의 경기가 열린 4일(현지시간) 휴스턴 우익수 콜비 라스머스가 추신수의 타구를 잡기 위해 점프 캐치를 시도했지만 공을 놓치고 있다. /연합뉴스

추신수(33·텍사스 레인저스)가 2루타를 빼앗겼다가 되찾았다. 추신수는 4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 주 알링턴의 글로브 라이프 파크에서 벌어진 메이저리그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홈경기에서 7번 타자 우익수로 출전해 4타수 1안타를 쳤다. 시즌 타율 0.239(35타수 8안타)를 사용해 주저했다. 2회 1사 1루의 첫 타석에서 삼진으로 물러난 추신수는 4회 2사 1루에서 빨랫줄처럼 뻗어가는 타구를 날렸다. 휴스턴의 우익수 콜비 라스머스는 정면으로 날아오는 평범한 타구로 생각해 제자리에서 거의 움직이지 않다가 예상 밖으로 멀리 날아오자 오른손을 쪽 내밀어 점프 캐치를 시도했다. 그러나 힘차게 날아간 타구는 라스머스의 글러브를 스쳐 펜스까지 굴렀다. 텍사스 경기를 독점 중계하는 폭스스포츠 사우스웨스트는 2루타라고 알렸다. 야수의 글러브를 맞긴 했으나 타구가 워낙 날카로웠기에 의심의 여지 없는 안타로 보았다. 그러나 기자회견에 있던 공식 기록원은 4회 텍사스 공격이 끝난 뒤 추신수의 안타를 우익수 실책으로 정정해 발표했다. 상대 우익수의 실수로 직선타로 잡힐 타구가 안타로 둔갑했다는 판단에서다. 추신수가 안타를 아쉽게 빼앗긴 모양새였으나 기록원은 5회말 텍사스의 공격 도중 다시 정정 발표를 했다. 추신수의 타구를 실책이 아닌 2루타로 수정한다는 것이었다. 시즌 20번째 2루타로 추신수는 최근 7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벌였다. 추신수는 5회와 8회에는 오른쪽으로 치우쳐 수비한 상대 시프트에 막혀 모두 유격수 땅볼로 잡혔다. /연합뉴스

“프레지던츠컵 골프, 한국 선수 출전 희망”

인터내셔널팀 단장, 배상문·안병훈 추천선수 거론

올해 10월 인천에서 열리는 프레지던츠컵 골프대회에 인터내셔널팀 단장을 맡은 닉 프라이스(짐바브웨)가 한국 선수가 대회에 출전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프라이스 단장은 5일 미국 골프전문 매체 골프채널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에서 열리는 대회인 만큼 한국 선수가 출전하게 되면 좋겠다”며 “그러나 배상문이 대회에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미국과 유럽을 제외한 인터내셔널팀의 대항전으로 열리는 프레지던츠컵은 미국과 인터내셔널팀이 각 12명씩의 선수로 팀을 구성한다.



안병훈

두 팀 모두 선수 10명은 최근 성적에 따라 선발되고 2명씩은 단장 추천을 받게 된다. 현재 인터내셔널팀 상위 10명에는 한국 선수가 한 명도 없다. 안병훈(24)이 11위에 올라 있어 대회 개막 전까지 좋은 성적을 낼 경우 10위권 진입 가능성이 있다. 배상문(29)은 프레지던츠컵 포인트 순위 25위로 사실상 10위 내 진입이 어려운 상황

이다. 프라이스 단장은 “배상문을 단장 추천 선수 후보로 생각 중이지만 최근 성적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배상문은 최근 7개 대회 가운데 다섯 차례나 컷 통과에 실패했다. 프라이스 단장은 “아직 배상문과 이야기 해본 적이 없어서 그가 언제 입대할지도 모르겠다”며 “남은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내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 선고공판에서 패소한 배상문은 9월까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활동을 마친 뒤 귀국해 입대 절차를 밟기로 했다. /연합뉴스